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0. 6. ( )

문의: 홍보실(T. 031-7400-321, 521)

### 제목: 분쟁·취약국 여성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KOICA 포럼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분쟁 · 취약국 여성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8회 개발협력 포럼”을 오는 6.29(화)에 개최한다.

유엔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12년 전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20만명의 여성과 여아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 한해에만 1만6천여 건의 성폭력 발생이 접수되었다.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이 “전쟁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취약국이란, 열악한 국가조직 역량과 취약한 거버넌스, 정치적 불안정 등 극심한 개발의 도전에 직면한 국가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잔재하는 지속적인 무력분쟁에 영향을 받는다. 취약한 국가기능과 분쟁상황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계층은 다름 아닌 여성과 여아인데, 반대로 이러한 현실은 분쟁 · 취약국의 경제 및 안보 재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평화유지와 국가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젠더적 관점을 통합해야 함을 골자로 하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를 국제사회가 채택한지도 올해로 10주년이 된다.

최근 잦은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구호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프간, 이라크 등 분쟁 · 취약국에 대한 KOICA의 정책 우선순위 역시 상승하면서, 분쟁 · 취약국에 대한 한국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시 성 인지적 관점의 적용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KOICA가 8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JICA의 젠더전문가 유미코 타나카(Yumiko Tanaka), UN 아프가니스탄 미션 광숙희 박사, 필리핀 민다나오 여성 위원회(Mindanao Commission on Women)의 패트리샤 사레나스(Patricia Sarenas) 위원을 연사로 초빙하여 분쟁 · 취약국에서 활동하는 양자 및 다자기구, NGO의 젠더

통합적 정책과 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권혁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외교통상부, KOICA, 대학에서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분쟁·취약국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OICA 개발협력 포럼은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전문가 및 학생 등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KOICA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번 포럼은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KOICA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031-740-0303). 끝.